

호남 3당 통합선언... 손학규 '백의종군'

현 지도부 전원 사퇴... 24일까지 합당 절차 마무리 교섭단체 구성·총선 기호 3번... 호남 총선 판도 변화 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당은 오는 24일 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어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번에는 합의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원내 3당이 공식 출범하는 것은 물론 4·15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전망이다.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당 출범으로 호남은 물론 전체 총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과 회동, 오는 24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 당의 현 지도부는 모두 사퇴하고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을 새로운 당

의 공동 대표로 선출하는 한편,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정당의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통합당 최고위는 3당에서 1인씩 추천하고, 미래청년·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장외세력 약 4명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당 명칭은 앞서 합의한 '민주통합당'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불허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오는 5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 참여 규모에 대해 "20명은 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섭단체 구성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합당 합의가 또 무산되지 않느냐는 전망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 합당안은 각 당 대표들의 추진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24일부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바른미래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3당 통합에 모니를 부여했던 손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3당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합 신당이 출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는 것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확정에 참여하면서 순천분구 등 호남 지역구 지키기에 결정적 역할을 기대된다.

또 호남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

상된다. 그동안 3당 통합이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 '씩씩이' 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이었으나 통합당 출범이 현실화된다면 경쟁 구도가 구축되면서 인물론을 기반으로 치열한 접전 지역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체제 견제라는 명분에서 수도권 등에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당이 4기 민주당을 구축을 명분으로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과 연대, 비례대표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당이 순조롭게 출범한다면 경쟁 체제가 구축되면서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접전이 펼쳐지는 지역구가 상당할 것"이라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당의 출범이 전체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선 라운지

최영호 "노인·장애인 문제 해법 유튜브서 공개"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청년부채, 여성의 경력단절 및 보육문제에 이어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세 번째 경청투어를 갖고 유튜브 채널 최영호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2020년에는 노인일자리가 64만개에서 74만개로 10만개 더



추가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도 확대되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면서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의 취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와 관련 공간과 시간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청년 월세 지원·행복 기숙사 건립 추진"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20·30 청년 세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20·30 청년의 삶이 더불어 행복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 1년 6개월 가량이다"며 "이는 청년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로 중



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음에도 청년들이 가고픈 데가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수당과 청년 기본소득제의 국가정책 전환 및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월세 지원 및 청년 행복 기숙사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폭락 위기 마늘값 선제 대책 세워야"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올해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특히 남도종 마늘의 산지 가격은 1kg당 800~14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면서 "1차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산 농협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수매는 거부하면서 급격한 마늘에 대해서만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는 농식품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당면한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매·비축 대책과 함께 농수축산업 경영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

김병원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나주·화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농어민 등을 총망라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영산강 생태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영산강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의 선도 정책과제



를 공동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산강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극복하고, 문명사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이는 세계적인 생태문명 운동으로서도 중요한 정책과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미래통합당 지지율 32.7% 리얼미터, 통합 후 첫 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30%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1.1%로 집계됐다. 출범 후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통합당은 32.7%로 나타났다.

이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당시 한국당과 새로운당이 합친 '통합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가정한 조사했을 때 민주당 36.6%, 통합보수신당 25.1%와 비교해 양당 모두 상승한 것이다.

정의당은 4.2%, 바른미래당은 3.2%였고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하는 국민의당(가칭)은 2.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4%포인트 줄어 9.7%였다.

문제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국정지지도)는 1.4%포인트 오른 48.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3.7%로 변동이 없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방문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

지검·고검 방문 직원 간담회

취임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5·18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를 강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완곡히 되풀이했다.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고검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

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원이 '조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

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윤 총장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총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